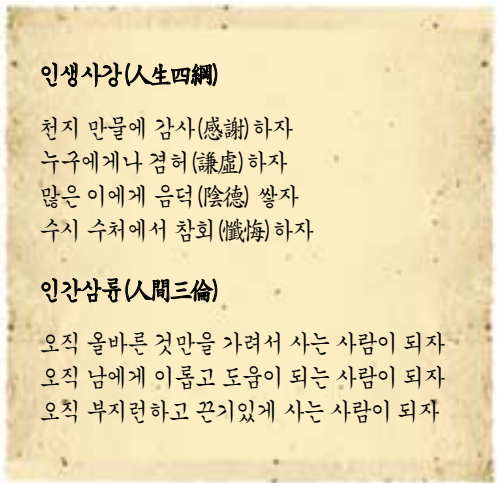


#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 행복”

## 범어사 능가 스님 ‘운명 바꾸는 사강삼륜 실천운동’ 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러나 다짐은 늘 작심삼일로 그친다. 삶의 방향을 바꿀 확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넘쳐나는 새해 첫달,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84·사진) 스님이 펼치고 있는 ‘운명을 바꾸는 사강삼륜(四綱三倫) 실천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생사상(人生四綱)**  
천지 만물에 감사(感謝)하자  
누구에게나 경허(謙虛)하자  
많은 이에게 음덕(陰德) 쌓자  
수시 수처에서 참회(懺悔)하자

**인간삼륜(人間三倫)**  
오직 올바른 것만을 가려서 사는 사람이 되자  
오직 남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오직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사는 사람이 되자

사강삼륜은 인생사상(人生四綱)과 인간삼륜(人間三倫)을 합한 말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과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할 도덕을 가리킨다. 천지 만물에 감사(感謝)하자, 누구에게나 경허(謙虛)하자, 많은 이에게 음덕(陰德) 쌓자, 수시 수처에서 참회(懺悔)하자는 가르침이 인생사상이고, 인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참다운 인간이 되려면 ‘오직 올바른 것만을 가려서 사는 사람이 되고, 오직 남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오직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삼륜이다.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자기운명을 바꾸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요, 인생의 기초가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실천

### 1년여 철학서·종교서적 탐독

###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 일목요연하게

세수 80세를 넘긴 능가 스님 평생의 수행과 공부를 단 한 장의 인쇄물에 함축해 놓은 사강삼륜의 가르침은 지극히 단순하다. 인쇄물을 받아 든 후자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네’ 하고 밀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강삼륜에는 사람의 도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담기 위해 1년여 동안 동서고금을 망라한 철학서, 종교서적을 다시 탐독하며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축약한 노스님의 눈물겨운 자비심이 담겨있다.

전덕목을 책상머리나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외우며 실천한다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난해 연말 사강삼륜의 뜻을 풀이한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인쇄소를 지켰다. 또한 평소 대중법문을 하지 않던 스님이 대중 법회를 자청하며 사강삼륜의 기초와 뜻을 풀이했고 실천을 간곡하게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스님은 “천지 만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것은 저절로 연결돼 이해가 된다”며 “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천지 만물이 수고를 하고 있다. 밥, 공기, 의복, 남편, 자녀 심지어는 내 몸속의 장기들이 작동을 잘 해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그 무엇과 만물의 작용덕에 살고 있으니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그 감사함을 안다면 절로 겸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재)나눔불교전도협회를 통해 30년간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발원한 스님이 이제 다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팔심 평생의 수행을 응축한 실천덕목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방향타를 쥐어주기 위한 법보시를 시작한 것이다.

코팅까지 해 벽에 걸 수 있도록 돼있는 사강삼륜 인쇄물을 받아든 불자들은 “노스님의 간곡한 부탁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앞으로 매일 이 가르침을 새기며 실천해서 참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051)508-6779

스님은 “사강삼륜은 인류역사 속에서 증명된 고정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창립된다

## 17일 코모도호텔서, 부산 경남 지도자 33명 이사로

부산 경남 불교여성 지도자들의 연대와 여성 불자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된다.

1월 17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총무홀에서 창립 기념 법회를 봉행하는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원장은 전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숙 코모도 호텔 대표가 맡았다.

또한 부산여성복지회 왕선자 회장, 이숙자 한국 유니세프 부산지회장, 선양복지원 김수현 이사장, 박태규 사회복지법인 흥의 대표이사, 김영순 흥법



### 새 희망 풍선에 담아...

불기 2550년 부산불교계의 새해 원력을 담은 신년하례법회가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공동 주최로 1월 5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는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식전행사, 법요식,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부의장 지혜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김광삼 본사 사장 등 부산의 승가와 재가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천미희 기자

사 합창단장, 김춘자 범어사 원효암 신도, 민화옥 영빈관 대표, 천양자 안국선원 신도회장, 신혜숙 여성인권센터 대표 각 사찰 신도회장 및 신행단체장 등 33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051)851-4166

### 표충사 청각장애인 템플스테이

1월 14일~15일 1박2일 동안 각 지역 농아인 협회 간부로 구성된 한국농아인협회 정치아가 데이 1기 수강생 60여명이 표충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한다. 수화합창단 8명과 수화통 역을 위한 진행요원도 표충사를 찾는다. 표충사에서 농아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장작불 지피는 은둔방, 대나무 숲 산책 등 자연과 교감하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표충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아인들은 주지 스님과 차담 나누기, 수화 찬불가 공연, 한계암 답사, 108배 등을 체험하게 된다.

표충사는 둘째, 넷째 주말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 주말은 20명 이상 신청 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평일이라도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055)352-1070

### 49일간 큰스님 초청법회 개최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은 ‘재개원 기념 49일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1월 4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49일간의 법회를 일제히 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주 스님(해인정사 주지), 혜홍 스님(감로사 주지),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 정여 스님(여연선원 주지) 을 초청, 법문을 듣는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국가고객만족도 1위인 M의 매력,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HyundaiCard M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현대카드, 2005년 국가고객만족도 신용카드 부문 1위!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시스템과 혜택,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까지 - 현대카드를 가장 매력적인 카드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현대카드 매력,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알고 계신 혜택에 표시를 해보세요

- 인체 에너지 최고 3% 적립
- 연신요일 교환
- 전국 180만 가맹점에서 M포인트로 2% 이상 적립
- TGF 특별포인트 4% 적립 및 M포인트 결제(최대 20%)
- 파산·고려사, 재원외적, 인디안 등 3%
- 포인트플러스를 통해 M포인트(타카카) 3%, 증가점 1%
- 가족유용: 캐시카드, 한센 캐시카드 등 3%
- 박화현: 신세계, 올리비아 등 2%
- 스타벅스 음료 사자 1주 무료 업그레이드(미나미)
- 패밀리서비스: 아웃백, 베나건스 등 2%
- 가전유용: 하이마트, LG하이마트, 삼성오션드라이 등 2%
- 호텔: 조선, 신라, 프라자, 하얏트 등 2%
- ※ 일부 가맹점 및 일부 카드의 일부 혜택은 제외
- 맥스무비 영화티켓 포인트 결제
- 자실 책 최고 200만원 할인
- www.justgo365.com 환신 포인트 결제(최대 10%)
- 항공권/항공리조트 교환
- PALAZZO del FREDDO 아이스크림 포인트 결제(최대 20%)
- 현대카드뱅크/GS칼텍스 라프링 40포인트 적립
- 현대전화 요금 지출이벤트 더블포인트 적립
- 포인트샵 쇼핑
- 현대은 로빈, 디지털 사진 인쇄 포인트 결제

0-6개월 기준 혜택만 알고 있는 당신은 M포인트 초급, M의 새로운 매력에 좀 더 눈을 뜨십시오!  
7-13개월 기준 혜택만 알고 있는 당신은 M포인트 중급, 하지만 거기서 그칠 M포인트가 아닙니다.  
14개월 이상 혜택만 알고 있는 당신은 M포인트 고급, 혹시 현대카드 직원은 아닙니까?

HyundaiCard M 최고 3% M포인트 적립, 자실 책 200만원까지 할인, 국내 최초의 투명카드 디자인

HyundaiCard M Platinum 최첨단 바이오 칩의 혜택, M 기본 혜택에 호텔, 호텔, 국제, 부티캐시카드

HyundaiCard mini M 일반 카드 1/2 크기, 서민만 미니 M카드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박용하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기획실장

부산 불교 복지는 불과 15년 만에 눈에 띄는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고 각 복지 분야의 앞서는 모델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때문 행정당국에서도 어찌 못하는 사안에 대한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부산 불교 복지의 오늘 뒤에는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박용하(48·기봉) 기획실장의 뛰어난 행정력이 있었음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혜종 스님도 “마음 진실하지, 신심 깊지, 게다가 행정까지 밝으니 불교복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실장은 불교가 곧 복지임을 강조한다.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점이 곧 불교적 가르침에 있기에 수행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행정 실무 능력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위탁기관 수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늘 기쁜 마을’ 내원 등 불교 사회복지법인이 파생되면서 ‘불교계가 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전환에 성공했다. 타 종교계의 견제를 받을 만큼 불교 복지만의 전문성과 역량도 키워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성공 뒤에는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위탁 경쟁에서 무수히 떨어지며 좌절도 맞았다. 그러나 94년 개금복지관 위탁을 위해 2년 전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98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위해서는 95년부터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불교 복지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박 실장의 행정력은 구슬 꿰기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단위 사찰별로 드러나지 않게 진행돼 왔던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제도권내의 복지 사업으로 꿰어내는 일을 진행했다. 또한 불교적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불교사회복지연구원’도 설립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불교를 빼고 청소년 분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도 쌓았다.

“불교에는 복지 자원이 많다”는 박 실장은 “지금까지가 불교복지 기반 조성, 자원 개발, 확산의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불교복지의 역량을 연대하고 불교복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불교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찮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어나 행정이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박 실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혼모, 성폭력 등 복지 영역을 세분화, 전문화해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불교적 가르침을 복지와 접목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의 구슬 꿰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쟁력을 갖춘 중무 행정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실장은 전문 행정가로써뿐 아니라 개금복지관 관장을 맡으며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았다.

“은퇴하는 날까지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이고 싶어요. 정년을 채워서 퇴직하면서 늘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부처님 심부름을 하고 또 보다 나은 불교복지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할 겁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